

홈 > 뉴스 > 코리아플러스 > 교육과학

장애율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목적

원광대학교병원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업무협약

2016년 09월 23일 (금) 14:04:57

이한국 기자 ✉ qoren219@nate.com



▲ 원광대병원과 전주지역 8개 병*의원간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면.

[의료=코리아플러스] 임천 기자 = 원광대학교병원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의 장애율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응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권역 내 장애인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리아플러스(<http://www.k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원광대학교병원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업무협약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목적

등록 : 2016-09-23 10:57 수정 : 2016-09-23 10:57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 했다. 사진은 협약체결식 장면. <사진제공=원광대병원>

(익산=포커스뉴스)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를 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세응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 병의원과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해 권역 내 장애인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bule2737@focus.kr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Mpress

HOME > 뉴스 > 병원·의원

원광대병원, 8개 재활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김경원 기자 | 승인 2016.09.23 14:39



사진 제공 = 원광대병원

원광대병원이 지역 8개 재활병원과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율을 최소화하고,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8개 재활병원은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병원 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응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
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
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해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서비
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kkw@mpress.kr

<저작권자 © 엠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기사인쇄

원광대병원-전주지역 8개 병원, 재활의료 업무협약

강찬우 ehealth@ehealthnews.net

원광대학교병원(원장 최두영)은 지난 22일 원내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원광대병원과 MOU체결한 병원은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슬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이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율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해 권역 내 장애인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3 10:59

Copyright(c) E-헬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E-mail. webmaster@ehealthnews.net

닫기

프린트하기

Dailymedi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원광대병원, 지역 병·의원과 '재활의료' 협약

뉴스일자: 2016년09월25일 15시41분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심뇌혈관질환 장애율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지역 8개 병·의원들과 재활의료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상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곳이 참여했다.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병의원은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게 된다.

또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 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한다.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 사업도 공동진행할 계획이다.

노세웅 심뇌재활센터장은 “심뇌혈관질환자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체계 확립,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dailymedi.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항담기

원광대병원,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업무협약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목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를 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응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권역 내 장애인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쇄하기

[홈](#) > [뉴스](#) > [뉴스](#) > [병원](#)

원광대병원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업무협약

장애율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목적

2016년 09월 24일 (토) 19:54:03

박현 기자 hyun@kha.or.kr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슬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율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등 사업의 공동진행과 상호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웅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체계를 확립해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홈](#) [인쇄하기](#) [창닫기](#)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김남호 전북심뇌혈관질환센터장(가운데)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업무협약

원광대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지난 22일 열린 이번 업무협약체결에는 효사랑가죽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아울러 원광대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과 심뇌

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 및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 수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의 공동사업도 벌인다.

원광대병원 노세웅 심뇌재활센터장은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을 통해 전북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엄철호 기자

원광대병원-전주 병의원 8곳 재활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했다.

원광대병원은 22일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주지역 효사랑가죽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원광대병원, 전주지역 8개 병·의원 협약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익산=임규창 기자



원광대병원-전주지역 8개 병·의원 업무협약

원광대학교병원이 전주지역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23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드림솔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 사업의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익산=고운영기자

원광대병원, 지역 병·의원과 '재활의료' 업무협약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은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

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음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영안 기자(jya6505@)



원광대병원-전주8개병원 업무협약 체결

심뇌혈관질환 서비스 향상

최근 원광대학교 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전주 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뇌혈관질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은고을재활병원 등이 참

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 및 안내책자 발간, 홍보 캠페인 전개와 함께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원광대 병원 관계자는 "심뇌혈관 질환자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원광대병원 = 최근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주시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 했다.

심뇌혈관질환 장애율 최소화 ‘합심’

원광대병원, 전주시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

원광대병원은 전주시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 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 인력의 교육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 사업도 공동 진행할 방침이다.

노세웅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해 권역 내 장애인자의 재활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소재완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이 22일 전주시역 호시랑가족요양병원, 호시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은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 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원광대병원-전주시역 8개 병·의원 '어깨동무'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이 전주시역 8개 병, 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호시랑가족요양병원, 호시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은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 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 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 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웅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 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해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섭기자/choids8068@naver.com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활의료서비스 체계적으로”

원광대학교병원,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업무협약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호사람가족요양병원, 호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

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 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음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해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장애율 최소화 ·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목적

원광대학교병원 전주지역 8개 병, 의원과 업무협약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지난 22일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주지역 8개 병, 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 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율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 의원 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 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웅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 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익산=김유식 기자



전북 원광대병원,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 구축

원광대병원, 전주 8개 병·의원과 MOU

전북 원광대학교병원은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삼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

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등 사업의 공동진행과 상호 지원한다.

노세웅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해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김용균 기자

kyg1541@hanmail.net

프린트하기

원광대병원-전주지역 8개 병·의원 '상생'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목적

뉴스일자: 2016년09월23일 14시07분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전주지역 8개 병·의원과 재활의료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2일 원광대병원 예방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대자인병원, 드림솔병원, 더세움병원, 한솔재활요양병원, 상남재활병원, 온고을재활병원 등 8개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이 참여했다.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김남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의 장애를 최소화 및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재활 병·의원간 심뇌혈관 재활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내 재활의료 자원 현황 파악과 안내책자 발간,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재활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인력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표준진료지침 프로그램 보급등 사업의 공동 진행과 상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세웅 원광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은 “전주 지역에서 뜻을 함께 하는 재활의료 관련 병·의원들이 모여 심뇌혈관질환자의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권역 내 장애환자의 재활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sotong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향달기